

제2023-19회
(정기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9호

중 앙 집 행 위 원 회

일 시 2023. 8. 21. 21:00

장 소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가 링크: <https://kaist.zoom.us/j/87999921768?pwd=b3JpeFVCaEpsZDBnRGpZZTNGNm3Zz09>)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1호 / 보고안건 제2호 / 보고안건 제3호 / 보고안건 제4호 / 보고안건 제5호 / 심의안건 제1호 / 심의안건 제2호 / 심의안건 제3호 / 심의안건 제4호 / 심의안건 제5호 / 심의안건 제6호 / 논의안건 제1호

부의 안건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 보고안건 제4호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설치 보고
- 보고안건 제5호 본회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 보고
- 심의안건 제1호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심의안건 제2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심의안건 제3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 심의안건 제4호 전산학부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 심의안건 제5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 심의안건 제6호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결의안
- 논의안건 제1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개회 일시 2023. 8. 21. 21:06

정회 일시 2023. 8. 21. 23:22

속회 일시 2023. 8. 21. 23:38

폐회 일시 2023. 8. 21. 24:38

○개회 시 출석 중앙운영위원(16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청가 중앙운영위원(2인)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대리: 부학생회장 윤대한)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대리: 부과대표 윤희성)

○결석·지각·조퇴 중앙운영위원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결석)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결석)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결석)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조퇴)

○서기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참관인

VOK 국장 김선호 /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지원국장 김성원

의 사

(개회 21:06)

○의장 한정현: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서진: 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 중앙운영위원 21명 중 재석 16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21시 06분 제2023-19회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5건의 보고안건, 6건의 심의안건, 1건의 논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안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유키 및 ARA에 업로드한 소집 공고에서도 안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학우들께 송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한정현입니다. 본 회의는 제2023-19회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로 학생회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정기회의입니다. 여러 보고안건 및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예산 사후승인안 등 심의안건과 대외적 사항을 처리하는 결의안, 그리고 논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안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의 방향성과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협력과 소통, 논의의 장으로서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일까지는 본회 산하기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산하기구의 기구장, 담당자께서는 큰 수고하셨습니다. 새벽까지 검토 및 문서 정리 작업을 진행한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에서 진행한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보고 및 결산 그리고 회계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매뉴얼 작성 요령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전학대회 소위원회나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 일련의 과정에서 지적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제공된 매뉴얼 또는 작성 요령에 따라 담당 국서나 소위원회에서 좀 더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고자 하였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2023-6회 중앙운영위원회 3월 임시회의처럼, 늘상 하는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결산 및 사업보고서, 안건을 심의하는데 6시간 상당을 소요하는 등, 우리가 좀 더 학생들을 위한 일들,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여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매 학기, 매년 반복되는 업무들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쏟아 부어온 것을 우리가 직접 회의를 하면서 목격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다 같이 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운위 회의를 두세 번으로 쪼개고, 각 회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을 심의하는 데 5분에서 10분 남짓이 소요되는 것처럼,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 사전 심의안도 유사한 시간이 걸리도록 회의 이전에 상세히 검토와 사전 논의를 거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회의 운영을 하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회 산하기구가 사업을 진행하고, 각 기구에서 기구장들이 기구를 대표해서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보장해 드리고, 우리 학부 총학생회가 당장에 페이퍼워크나 사무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가 외부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자,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 왔으며, 이번 하반기 때는 그 효용을 상반기보다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마저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협조가 결국에는 신속한 회의 운영을 통해 여러분들께도 결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단 위원 개인 1인뿐만 아니라 위원이 속해 있는 학과 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회의 구성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총학생회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입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서진: 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3-17회와 18회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는 2023년 8월 16일 21시 04분에 개최하여 같은 날 23시 38분에 폐회하였습니다. 3건의 보고안건, 1건의 심의안건, 4건의 논의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에서 제3호를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 논의안에서는 제안한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안을 가이드라인으로 각 기구의 중앙회계를 분배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안건 제2호 2023년도 하반기 기층기구회계 분배 논의안에서는 제안한 2023년도 상반기 기층기구회계 분배안의 기준 및 점수를 사용하여 각 기구에 기층기구회계를 배분하되,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감사 점수 및 번역 점수는 각각 만점으로 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안건 제3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에서는 원안대로 격려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되, 경과조치에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로의 전용을 기층기구회계, 중앙회계 및 문화자치기금으로의 전용으로 수정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안건 제4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에서는 원안대로 의결기구 회의 출결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자 책임 고취안 및 대표자 격려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되, 대표자 책임 고취안의 세부내용 및 출결기준은 하급회의체에 회부하여 검토 보고를 받고 중앙운영위원회 8월 정기회의에서 정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대표자 책임 고취안을 추진함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의 내용을 출석 점수를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서면의결로 심의의결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023-18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서면의결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8월 18일 18시에 개최하여 2023년 8월 19일 23시 59분에 폐회하였습니다.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중앙운영위원회로 발의하거나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의사일정은 사전에 공지한 것처럼 소집 공고에 공지한 안건 순서대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즉 보고안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심의안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그리고 논의안건의 순서대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출된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는 없었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께서 발언권을 요청하였는데 의사진행 발언일까요?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아니요, 방금 보고안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에 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추후에 의견 남겨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보고사항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다음 회의 보고사항 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뭐 일단은 논의안건 얘기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 괜찮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아닌 걸로 파악되었고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를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것처럼 소집 공고에 부의한 안건의 순서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소집 공고에 부의한 안건의 순서와 같이 보고안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심의안건 제1호부터 제... 네, 보고안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심의안건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고요. 논의안건 제1호(까지), 이 순서대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총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단체급식 식당 만족도 개선 2차 회의를 위한 사전검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시설관리부장님, 시설팀장님, 그리고 고객경영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장, 그리고 저 학부 총학생회장 본인과 입주업체 모니터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단체급식에 업체별 동측 식당, 서측 식당 그리고 카이마루와 교수회관을 담당하는 식당 1곳 이렇게 총 3곳의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해당 회의를 통하여 업체에서 제안한 개선 제안서를 검토하였고 그리고 학식 Day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카이마루의 신규 업체 입점 관련하여 지난번 회의 때는 카이마루의 두 곳의 업체가 지금 현재 캠퍼스 앞쪽에 위치하여 새로이 의자를 들어내고 공사를 진행해서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두 곳 입점하기로 하였는데, 이날 논의를

통하여 그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점심시간 혼잡도가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지금 웰차이 쪽으로 조금 더, 아예 카이마루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해서 3곳이 더 입점할 수 있도록 대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래 논의하였던 대로 올해 가을 학기에 2곳이 입점하기로 하는 것은 아예 연기하기로 하였고, 나중에, 지금 회의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내년도 여름학기 중으로 예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카이마루 확장 공사를 마무리한 후 3곳이 추가로 입점하는 것으로 논의하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 식당 만족도 개선 회의의 2차 회의를 가을 학기 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총장님 주재하에 8월 24일 중으로 회의를 계획하였으나 해당 회의 동안 다시 한 번 업체들과의 검토를 거쳐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이석봉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미팅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회의는 8월 8일자로 진행된 미팅의 후속 회의로서 당일 미팅을 통하여 대덕특구 순환버스 시범운행(특구 1번 버스)에 관해서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안건 관련하여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 제시한 1, 2번 안 다시 말씀드리면 도룡동과 봉명동을 제외하고 둔산동을 경유하는 안건에 대해서 학부 총학생회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에는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서 해당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의 노선에서 구암역 부근, 구암역의 직접적인 바로 그 부근만 제외하고 최대한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기로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면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2.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 제80조제5항, 제91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17조제2항에 따라 각 단위에서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각 단위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운영 보고 사전에,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27개 단위에서 보고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단위별로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발언 순서는 본 표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위가 아니어서 금일 참관하지 않으신 단위에서는 제가 주요내용만 대리로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단위의 보고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다음 단위에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부터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지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 둔 관계로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채용설명회·상담회 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업 채용설명회·상담회 기획단의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GPA 백분위 점수 환산 방식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제휴 업체 선정 및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KAMF 기획단 학생지원팀 미팅, 그리고 KAMF 기획단의 정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상설위원회는 제가 대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LT를 갔다 와서 봄학기 사업 피드백과 가을학기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단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2023 POSTECH-KAIST 학생

대제전을 준비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팀장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팀별로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서는 장영신학생회관 유지보수, 2023 POSTECH-KAIST 학생대제전 부스 운영 관련 논의, 방학 중 상근 등 관련 업무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및환경공학과부터 이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보고사항 없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네,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기계공학과 결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술경영학부 부탁드립니다.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운영 보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 안건지에 작성되지는 않으나 회의록에 발표한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으며 또 향후에 이 내용들을 수합해서 저희가 월별 보고나 업무 보고할 때 추가적인 내용들을 다 반영하므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제출 안 했더라도 오늘 회의 중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입니다. 8월 5일부터 6일까지 물리학과 교류행사 진행하였고, 내년에는 포스텍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바이오및뇌공학과 결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생명과학과 보고사항 없고요.
이어서 생명화학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수리과학과 대리인 윤대한: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대리인으로 출석해서 보고사항 관련하여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정) 2023년도 하반기 사업
계획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결석한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먼저 SoC 모임 우수활동자 및
공유이벤트 담당자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사항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추가적인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8월 18일에 서울권 주요 대학
컴퓨터공학과 및 과학과 학생회 연합 해커톤 대회
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화학과 학생회장 대리 윤희성: 8월 25일부터 8월
26일에 저희 화학과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제출하였고, 그리고 하반기 사업 계획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네, 새내기
학생회장 송채빈입니다. 8월 23일부터 25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후기 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을 위해서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6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후기 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총 120명의 후기 신입생과 300명의 교환 학생을
대상으로 3일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16일에 새내기학생회의 가을학기 사업 진행 관련
학생생활팀 미팅을 진행하여서 본회계 예산과 관련된
사업 보고를 모두 완료하였고 8월 18일 2023년도
가을학기 새내기학생회 사업에 대한 사업 수혜대상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새내기 학생에 대한
준회원 자격 승인과 관련하여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와 미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동아리연합회입니다.
버스업체 백제관광과의 제휴를 맺었고요. 동아리방
재배치 채점 및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동아리방 이사를 준비 중이고요. 월간동연 8월호를
제작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이어서 전문기구는 제가 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회계감사 매뉴얼을 공지하였습니다.
8월 4일자로 202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매뉴얼을
공지하였으며 예결산안 양식을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과 통일하였고 영수증 등의 부착자료를 모아
정리할 증빙서류부착양식을 추가하는 등 매뉴얼에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제2023-16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회칙에 명시된
회계책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 결원
보충을 위한 겸직금지 조항 완화 및 임시위원 모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건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문화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자치기금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전산학부 학생회,
VOK, STROKE 등 문화자치기금 신청 단체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주 심의에서 문화자치기금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는 상시적으로 번역 서비스를 총학생회 및 산하단체에게 한-영 양방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학기 신입 위원 모집을 위하여 총학생회 SNS 페이지를 빌려 홍보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등 리크루팅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심의한 것과 같이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보고 및 내부호선 보고와 인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준 요청서의 경우에는 일부 서식의 오류로, 정확히는 표 안의 내용이 없어서 반려하였고요. 22일까지 재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재제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리마인드하여 전학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준 요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는 차기 정기 전학대회 4분기 정기 전학대회 전까지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그동안은 궐위를 유지하다가 정기 전학대회에서 신입 위원장을 인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습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7월 내용도 함께 기재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므로 제가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에 SNS 인스타그램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내부 인권 세미나(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인권윤리센터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8월에는 포용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상담 대응과 사안 대응 및 연대 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4개 전문기구 대리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서기님께서 저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잘 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참가자 중에 '보조 기기'라고 하나 있는데요.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식별이 돼야 되니까 본인 성함을 혹은 직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학우들께 공개되는 공개 회의이긴 하나 식별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 줌의 경우에는 외부인이 접속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본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식별 가능한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대리인분들도 질문이나 의견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질문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별 운영보고는 학생회칙에서 규정하는 보고의무로써 각 단위에서 운영 보고를 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회 산하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운영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지난 한 달 동안에 각 기구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했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어떤 업무들을 수행할 것인지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작성해 주실 때 단순히 이것이 의무로 부과되어서 작성하고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 위원들에게, 그리고 학우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3.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 62조제3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개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가 각각 2회, 0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회칙개정특임위원회는 의사정족수 등의 사유로 8월

중에 개회 예정이었던 정기회의는 휴회하였으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공식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산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 선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자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 선거가 종료되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지난 약 한 달 동안 인준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설립 인준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안 등을 서면의결로 심의·의결하여서, 뇌인지과학과처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 회의 결과를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상세 내용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있는 붙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고안건 제3호에 관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저희가 작년에 설립한 기부금 협약 관련 법적대응특임위원회가 아직 해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체는 언제 하실지 여쭙습니다.

○의장 한정현: 우선은 관련해서, 해당 기부금 협약 관련 법적대응특임위원회인가요? 그 특임위원회가 현재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제34대 학부 총학생회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 운영보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지만, 산하위원회 관련 사안이라서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 더 받겠습니다. 현재 산하위원회에서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와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되면 선출 보고안건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고안건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 운영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미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4. 보고안건 제4호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설치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4호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설치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80조제5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지원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지원국장 김성원:

안녕하십니까,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지원국장 김성원입니다. 먼저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설치를 보고하기위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추진단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기업과 연계한 채용설명회·상담회의 개최와 원활한 준비를 위해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인 집행지원국서에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8월 2일부터 3일 중앙집행위원 대상으로 추진단을 모집했고 총학생회장단 1인과 중앙집행위원 2인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단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지원국장인 제가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운영 요령에 대해서는 요령 중 (기획단·추진단) 란을 보시면 국서 산하에 일정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업을 담당하는 기획단·추진단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3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 집행지원국 산하에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을 두고, 그리고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번,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단장은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3번,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단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가, 총학생회장단. 나, 중앙집행위원. 다,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집행위원이 아닌 본회 회원. 4번,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은 추진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산하에 팀을 둘 수 있다.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산하 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장이 정한다로 운영 요령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지원국장 김성원, 사무팀원 공민재, 부총학생회장 한정현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추진단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하반기 중앙집행위원회 리크루팅 이후에 의원이 변동될 수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안건 제4호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설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이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을 설치하여 기존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던 채용설명회 또는 상담회 사업들을 인계받아 학부생에게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학부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기업들과 또 컨택도 진행해서 관련 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하여 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일반 채용뿐만 아니라 전문연 또는 기타 병역 특례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 학기 진행되는 전문연 박람회도 해당 추진단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아 네, 기존에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상·하반기 취업박람회와 상·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취업박람회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중앙집행위원회 담당 국서 또는 총학생회장단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와는 별개로 개별 기업과 컨택하여 개별 기업의 채용 설명회나 상담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유사한 기업이나 동종업계 기업들이 두 개 모두 참가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상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상의 사업상으로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 더 받겠습니다.

기존의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대부분의 카이스트 학우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그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니 학사 졸업 후 취직이나 아니면 기업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케어하지 않았던 기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학부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관심도와 그 비율이 늘고 있고 또 학우들의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좀 더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을 설치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각 학과마다 뭔가 취업이나 진로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들 혹은 학생들의 관심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진단에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4호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설치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4호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설치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5. 보고안건 제5호 본회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 보고

○의장 한정현: 네, 보고안건 제5호 본회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80조제5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즉 중앙집행위원회 소관 업무 및 소관 사항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처리하고자 하나, 본회 산하기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올려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에 맞춰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먼저 말씀드리면 참고사항에서 학생회칙 제3조, 4조, 163조, 그리고 재정운용세칙 제4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 대표적으로 산하기구 위원직 수행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본회의 정회원 학생회비 납부자만이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하기구에서는 학생회비 미납부자인 본회의 준회원이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본회의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리크루팅을 하는 산하기구나 본회 준회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산하기구가 있는 반면에 납부 여부를 인지함과는 별개로 본회의 준회원이 자유롭게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산하기구가 존재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 총학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는데요. 2020년도 이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으니 문서상 남아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파악했고, 관련 명단이나 명부가 있는지 기록이 있는지 위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임을 사전에 공유를 드립니다. 2020년 전에는 중앙집행위원회 등 담당기구가 총학생회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명부가 보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회 준회원이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를 명확히 보고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1년도 12월에는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총학생회 차원의 위원 명단을 제작했습니다. 각 학부·학과 학생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상설위원회, 집행기구, 자치기구의

위원 명단들을 모두 수합을 했고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수인계 문제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하반기 동안에 자치활동에 참여한 본회의 준회원을 대상으로 학생회비를 추가납부받아서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활동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학기 생활관 사용 추천이나 리더십 마일리지 등 자치활동으로 수혜하는 혜택도 인정을 하였는데요.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현재만큼 활성화되거나 또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절학기 생활관 사용하는 학생이 많이 없었고, 또 제한적으로 학교에서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런 작지만 자치활동으로 수혜하는 혜택 부분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0년도 6월에는 21년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총학생회 차원의 위원 명단을 제작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동안 자치활동에 참여한 본회 준회원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각 단체에 인정하지 않음을 통보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관련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관련 수혜자가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본격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계절학기 생활관 사용 추천이나 리더십 마일리지 등 자치활동으로 수혜한 혜택에 대해서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준회원일 경우에는 자치활동으로 인한 준회원이라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준회원일때 자치활동으로 인한 혜택들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학생 사회에서의 담론을 형성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회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을 제작하여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학생회칙 제4조제4항 및 재정운용세칙 제4조가 있습니다. 본회 산하기구 위원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본회 산하기구 위원 중에서 학생회비 미납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학생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20200원을 과징금으로서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과징금과 학생회비 납부는 별개로 처리하는 것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학생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학기 끝나갈 때쯤에 학생회비 추가납부하는 거 받아주고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이어지는 학생회비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학생회비 미납자가 본회 자치활동에 참여한 후에 이에 대한 패널티 내지는 패널티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조치로서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학생회비 납부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학생회칙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산하기구 활동하는 우리 학부 총학생회 위원들이 좀 더 학생회칙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하기구 사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관련 사안을 각 기구로 통보했을 때 일부 기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미납자에 대해서 공식 명부에서 삭제한다거나 미납자를 심지어는 방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기구에서는 그냥 소위 말하는 동아리 유명 부원처럼 공식적으로 인정 안되고, 그냥 활동 그대로 같이 하고 그에 따라서 회의비 나오는 걸로 회식도 같이 하고 정확히는 회의비 나오는 것으로 회의비에 상응하는 그런 식대나 차대 지출도 같이 하고, 또 학생회비로 구입한 비품이나 소모품도 함께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각 기구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어서 이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또 자치활동 참여자가 이제 본회의 산하기구로서 학부 총학생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한다라는 책임감을 고취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또한 자치활동의 활성화 등 실효성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학생회비에 준하는 그런 과징금을 징수함으로써 관련 재원을 결국에는 학생회비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결국에는 본회의 재정 운영에 긍정적으로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들을 첨부해 두었고요. 과징금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과징금, 추징금, 과태료, 벌금, 수수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과징금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수수료의 개념과 유형, 추징금, 벌금의 개념과 유형을 다 찾아봤을 때 과징금이 제일 유사한 표현인 것 같아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만약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괜찮은 표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징금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적인 처분으로서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적인 방법으로 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유형으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행정법령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식품위생안전법 같은 거에서 이제 식당들 영업 정지하거나 식당들에서 벌금 내는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과징금의 유형은 3번입니다. 학생회칙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로서 이로 얻어지는 사회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하고 결국엔 이를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서 부과하는 제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대학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학생회비 미납자의 자치활동 참여에 대한 조치를 이걸 회칙에 규정해서 자치활동 참여한 사람이 학생회비를 안 내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작성된 곳은 한 곳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를 좀 알아봤을 때에는 일부 대학 총학생회의 경우에 선거를 시행할 때 후보자의 학생회비 납부 횡수나 미납한 이력이 있는지를 명시하는 등으로써 간접적인 조치를 취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타 대학의 후보자 등록 서류나 선거 공고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곳으로는 UNIST의 경우 대의원의 의무로 총학생회비 납부를 규정해서 미납부 시 학생회칙 위반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UNIST 자치활동 학생회 홈페이지 '유자'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대학 사례는 이것을 회칙으로서 규정해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걸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뭔가 조치 내지는 패널티를 부과하기 위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 때 이런 걸 명시한다든가 아니면 대표자를 대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작일 20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각 기구에서 제출하신 명단이 있을 것이고, 또 리더십 마일리지나 생활관 신청 서류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명단을 확인해서 업데이트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재정운용세칙 제4조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안이긴 하나 본회 산하기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에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모두의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손 드신 순서대로 전산학부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우선 지금 올려주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취지 즉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선 만약 지금 과징금을 그럼 모든 산하기구에 대해서 명단을 수합하여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100%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것을 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또 함께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 학부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의 사례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이미 학생회 측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위가 훨씬 세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중앙집행위원회의 정책 사항으로서 그냥 보고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맞는지 혹은 적어도 논의안건이나 같은 징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칙을 개정하는 등의 심의안건으로서의 의결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런 걸 좀 질문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우선은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명부 파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사업 계획서에 활동하는 인원 명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사실과 다름없이 적어주셨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까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로서 충분히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산하기구 위원은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023년도 상반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안건이건 심의안건이건 인준안건이건 논의안건이건 간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사결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안건이 접수되는 것도 그 접수를 기준으로 선출직의 임기가 발효된다거나, 해당 학과의 사업 내역이나 운영 내역을 중앙운영위원회가 추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효력이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안건으로 다룬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접수가 되면 그것으로써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내가 나왔을 때 내지 않겠다고 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그에 대한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운위 의결 사항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모든 다른 안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부 장학금 분배 논의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논의를 했는데, 그거를 안 지키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TO를 어떻게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임의로 막 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취해지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가 논의안건이 아니라 보고안건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이는 재정운용세칙이나 학생회칙에서 보신 것처럼 명백하게 중앙집행위원회 소관 사안이어서 별도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또 아니고요. 있다가 있는 심의안건 제6호 보시면 대외적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심의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이 맞는데 이 경우에는 심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안건으로 부여하였고요. 그러면 보고안건은 그냥 접수하면 끝이기 때문에 더 쉽게 처리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선거 관련 선출 보고에서도 쟁점 사안이 있을 경우에 혹은 이것이 통과했을 때 뭔가 큰 틀에서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 본회 차원에서의 충분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표결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안들도 우리가 표결을 통해서 충분히 찬반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표결할 수도 있고, 원안대로 표결할 수도 있고, 표결을 했을 때 그 결과 부결이면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건의 심의 과정을 보면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 표결 등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나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의유무 표결같이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건의 종류, 보고, 심의, 논의, 인준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은 제안설명, 상정, 제안설명 토론, 찬반 토론, 표결 그리고 의사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건의 종류에 국한되지 않고 본 안건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학교 위원회나 다른 외부 위원회에서도 소관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안들, 즉 중운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구에서 정하는 사안인데, 이게 권역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보고안건으로 올리고 그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보고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한 가지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안건을 처리하는 용이성이 논의안건이면 어렵고, 보고안건이면 쉽고, 심의안건이면 중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안건을 올렸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안건도 부결되기도 하죠. 또 심의안건이 이의유무 표결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건의 내용에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안건의 유형에 따라서 안건심의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더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마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 동아리연합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네, 먼저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미리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일단은 과징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희 학생회칙에 나타나 있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이제... 아까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징금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과문이라든지 아니면 의원 정지라든지 이런 징계보다 훨씬 심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징금이라는 제도는 회칙상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보고안건 역시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우선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통보는 제가 이 내용을 그냥 메일로 보내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고안건은 통보안건이 아니죠. 보고안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건 내용을 공유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있어서는 소집 공고도 되고 회의 중에 논의도 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5일

안에 결과공고도 되는 것처럼 필요한 절차들 회칙과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통보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면은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 상하실 일이 아니라는 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 제도가 회칙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회칙에 모든 제도가 있을 수는 없죠. 저희가 회칙의 틀 안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들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칙에 없다고 무조건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위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과문 게재나 자격 정지보다 과징금이 더 수위가 높다고 생각해 주신 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요. 학생회비 안 내고 학생회 활동했으니까 추가납부하시라와 과징금하고 사실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문을 게재하십시오 학생회 활동하셨는데 학생회비 안 내셔가지고 규정상 좀 안 좋다, 규정상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200원 추가납부하셔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20200원 추가납부하는 게 훨씬 더 사과보다 수위가 낮다고 판단했고 이거 이름을 포장할 때 과징금이라는 이름으로 쓴건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러면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과문보다 더 수위가 높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학생회비 안 내고도 학생회 활동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방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과문보다 과징금이라는 용어가 사회통념상 쓰이는 그런 벌금 느낌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벌금하고 과징금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벌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사과문보다 좀 더 세 보인다고 한다면 그 용어를 조금 더 순화하는 식이거나 아니면 과징금 부과기보다는 어떤 어떤 납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고안건을 그냥 통과시켜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집행위원회 소관의 관련 제도를 추진하고 시행하기 전에 본회 산하기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권역적인 정책이므로 산하기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의 결론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가 되지 않는 이상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접수한다, 혹은 안건의 내용을 접수한다, 부대결의 어떤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 있는 내용대로 내일 당장 이메일이 날아갈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유형에 종속되지 않고 내용을 중심으로다가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학부 이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우선 동아리연합회장님께서 이것이 갑작스러운 통보라고 느끼셨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공고가 올라온 직후에 해당 안건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해당 안건 내용만 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이 물론 고의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이것이 실수에 의한 것이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상당히 많은 그런 업무 및 의결의 기초가, 예를 들어 하물며 자치기구가 안건 하나 제출할 때도 각 자치기구의 집행부 혹은 회장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임에도 회칙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건 제출이 반려되거나, 뭔가 보고사항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중앙집행위원회만 회칙상에 규정되지 않은 바를 단순히 중앙집행위원회의 정책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시행하려 하는 것인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치기구가 지금 계속 회칙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번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장단에서 상당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앙집행위원회도 도의적 차원에서 조금 더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우선은 안건이 가려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ARA의 기준으로 확인해 주신 건지 모르겠으나 ARA에 저희가 보시면은 처음 안건을 올렸던 게 20시 50분경이었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45분경에 어느 학과에 청가서를 제가 승인을 하고 9시에 최대한 가까이 올려야 청가서 더 오는 거 받아 접수할 수 있으니까 언제 올릴까 고민하다가 45분에 승인하고 50분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소집 공고랑 안건지의 내용이 좀 수정이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53분에 수정된 버전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ARA에는 수정하면은 원래 파일 이름에다가 하이픈하고 임의의 알파벳이 같이 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은 8월 20일 20시 53분 기준으로다가 제가 올린 내용과 동일한 안건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 종종 ARA 캐시를 안 지우거나 새로고침 등의 이슈로 예전 걸로 접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소집 공고 기한이 24시간 전 8월 21일 21시 기준 개회해서 8월 20일 20시 53분에 공고된 내용에 현재 보여드린 안건지와 동일한 내용이 있음을 안내를 드리고요. 해당 내용은 제가 20시 50분경에 수정하기 전에 올렸다가 새로 업데이트한 안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언더바 뒤에 알파벳 없잖아요. 그게 이제 수정하면 그게 뜨는데 수정하기 전에 캐시 오류나 아니면은 아래의 업데이트 오류로다가 그전 버전을 다운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안건지를 다시 확인했었는데요, 비슷한 말씀을 들어가시고. 그때 해당 내용과 똑같은 안건지로 확인이 됩니다. 수정 전, 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수정할 때 정확히 어떤 걸 고쳤냐면, 페이지 번호가 안 들어가 있어서 페이지 번호도 같이 넣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파일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고 제가 지금 화면을 송출드리는 것과 현재 ARA 및 카이위키에서, 지금은 아마 다 확인되실 겁니다, 올라가 있는 것들은 페이지 번호가 있는 거여서

아무래도 버전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해당 내용은 좀 더 알아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고 기간이 24시간 짧아진 만큼 중간에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더 파악할 시간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가서 내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24시간 전이라고 해서 꼭 24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니까 36시간 전에 내고, 36시간에 낼 것을 미리 미리 안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다가 검토 시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 시간과 공고 과정에서의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위원들께서 확인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안건이 가려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아무래도 버전 이슈인 것 같고요. 해당 내용은 제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문에 가려졌다거나 공고 기간을 안 지켰다거나 그런 안건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안건들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기구에서 회칙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건을 낸 적이 있나요? 선출보고나, 예산안이나, 추경안 이런 거 외에는 제가 자치기구에서 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종종 감사원에서 논의안건 낸 거 이외에는, 제가 회칙에 없을 법한 안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에 지금 이 안건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따로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 없으신 걸로 보서는 추후에 말씀... 아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물론 이번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겠으나, 일례로 활동 인정을 해줄 시에 회칙상의 해당 국서나 팀이 없을 경우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이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자치기구 회칙을 명확히 개정 또는 정립하기를 제가 강요받았다고 느낀 경험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중집위의 경우도 이렇게 큰 변경 사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어도 세칙 개정 정도는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이거는 신상 발언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활동 확인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말씀을 하시네요. 기본적으로 활동 인증서 발급받을 때, 발급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증빙 자료 같이 내잖아요. 하다못해 카톡방 캡처라도 보내는데 그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학생회장, 과대표, 아니면 회칙에 학생복지위원회 사무국장이 있으면 그 직책이 있는지는 굳이 증빙 자료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중앙집행위원들이 찾아보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증빙자료를 내야 되는데 학생회장, 과대표 이런 거는 집행위원들이 좀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직무자료 안 내셔도 되도록 편의를 보장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다른 잘 모르겠는 직책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부서의 부장 부원들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는 기존의 활동 인증서 제도에서 거기서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활동 인증서 제도에서 그대로 가져가되 일정 부분 검토가, 컨펌이 쉬운 것들을, 컨펌이 용이한 것들을, 저희가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면제했다고 해서 그것이 역으로다가 왜 다른 직책들은 면제 안 해주냐,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당초에 돌아가서 기존 활동 인증서 제도부터 개편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활동 인증서 개편 논의안을, 이거는 중문위에서도 논의안건 한 번 다루고 그다음 중문위에서 보고사항으로 다루고 그 다음 중문위에서 보고안건을 다뤘는데 그때 동안에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으시다가 정작 활동 인증서 시행하고 나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지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고 정착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신상 발언으로서 정정드렸고요. 관련해서는 본 안건과 크게 연관한

사안은 아니므로 필요 시 나중에 또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이제 생각이 난 건데요. 사실 동아리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회의 도중에 대리를 보내려다가 자치기구 세칙에 이제 대리를 보내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가서를 반려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제 총학생회장단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세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징금 부과를 보고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칙을 바꾸지 않고, 회칙을 바꾸지 않고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약간 기조에 맞지 않지 않는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한정현: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청가서의 대리인 파견 근거에 부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학생회 측에 있는 직책인가를 여쭙봤었는데, 부회장이 회칙에 없다고 하면서 그냥 대리 안 보내셨잖아요. 개정 전에도 동아리연합회장단으로서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썽요, 과연 그게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올해 처음 들어서 이제 얘기 나왔는데, 약간 그런 부분 좀 약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요청을 하시니까 수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사실을 바꿔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의장 한정현: 동아리연합회칙에 제가 봤을 때 부회장 관련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본 안건을 유관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논지 외에 이상한, 다른, 정정하겠습니다. 논지 외에 다른 예시들이 자꾸 들어왔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회식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회칙을 개정하는 등의 좀 더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러면 말씀해 주신 내용들대로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중앙집행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회칙 개정의 단계를 가져갈지, 아니면 당초에 근본적으로다가 학생회비 미납자가 자치 활동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다, 하면은 그 절차에 대해서 보고안건 의결로, 중운위 의결로 가는 거는 좀 과하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원가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회칙 개정 등이 좀 더 정교한 절차가 필요하다, 라고 친다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필요가 없다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동아리연합회 회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네, 일단은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집행위원회보다 더 상위의 결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장 한정현: 규칙 발언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기구의 결정 사항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하위의 개념은 아닙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뭐, 해석하는 거는 자유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의장 한정현: 그렇게 회칙의 전문이나 그런 기초들, 그리고 이 학부 총학생회 권력 분립 구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그냥 기존처럼 활동 인증서 발급을 시도하였을 때 너는 이제 학생회비를 낸 적이 없으니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상한 발언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이상한 안건이 올라오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현: 제가 이상한이 아니라고 정정 드렸고요. 이상한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드렸습니다. 논지 외에 다른 예시라고 정정했었는데,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회비 미납자가 학과 학생회 회장을 하고,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감사원 위원회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처럼 그냥 활동 인증서 발급 안 해주는 걸로 끝내는 것이 괜찮은 방법일지, 이걸 좀 위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안건의 근본적인 시작은 학생회칙에 학생회 활동 참여하려면 학생회비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학생회 임원들이 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명확히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방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임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할 정도로 뱉뉘도 된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가지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면, 아니면은 회칙을 준수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가치적인 면에서나 납부하는 것이 맞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이걸 좀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학부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느 산하 기구의 기구장이라든가 기구에 소속된 집행부원이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치가 시행되는 방식이 조금은 자치기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수위가 센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징금이라는 게, 2만 원이... 물론

당연히 내야 할 돈인 건 맞지만, 그걸 이제 과징금으로 그렇게 거둘 수가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가 좀 더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회칙 44조에 보면 전학대회에는 회원이 회칙, 세칙, 규칙을 위반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회원이 지금 회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을 넘어서서 징계 이상의 것을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 해석이 그렇게 쉽게 되는 조항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 정회원이 반드시 자치 활동을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자치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한다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과징금을 때리는 것이 아주 타당한지는 좀 고민을 모두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발언권 요청하신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전산학부와 비슷한 그의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입니다. 방금 과징금의 어떤 대안이라는, 대안으로서 활동인증서에 기입을 해주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학우분께서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해당 목록에, 그 기간에, 학생회비를 납부를 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쉽게 확인을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방법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확인에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기간이 2년일 때, 2년 중에 6개월만

학생회비를 안 냈다, 예를 들어서 인턴을 갔다 와서 부원직은 걸어두고 인턴을 가서 일도 조금 했는데 그때 인턴 가느라고 학생회비 안냈으면은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거든요. 활동 기간이 6개월, 1년 단위로 끊기는 것도 아니고 2년씩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소재 공학과 이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저는 이전에 의견 내주셨던 분들과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회원이 회칙을 위반한 경우 이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그 징계를 통해 해결해야 되지 왜 회칙에 없는 과징금을 부과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과징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아직... 그러니까 학생회비를 안 내고 활동한 사람 입장에서 가장 깔끔하고 가장 약한 수위의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어쨌든 영구적으로 회의록이나 안건지에 박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2만 2천 원을 내라라는 징계를 만약에 의결한다면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한 거, 예를 들어 즉시 권한을 박탈한다거나 해임한다거나 이런 더 강한 징계가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칙을 위반한 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과징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깔끔하고 약한 수위다라고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제가 수위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하나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또 한 가지 논의가 필요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럼 반대로 학생회비를 안 낸 사람 입장, 안 내고 학생회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징금 내지는 무슨 무슨 추가 납부로 끝낼지, 아니면 그냥 그것 마저도 싫은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활동 미인정이나 징계로 가는 것이 나올지 당사자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마땅하게 답을 주신 분이 신소재공학과 말고는 없어서요. 각각의 수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가 절차랑 수위에 대한 얘기가 지금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 논제인 것 같은데, 절차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수위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개별 자치기구의 사례를 가져와 전체 학생 사회에 도입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른 자치기구 중에 좋은 예시를 들 사례가 있어서 제가 동아리연합회 사례를 잠깐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동아리연합회의 경우는 대부분 지금 분들이 동아리를 아마 한 번 이상해보셨을 거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 클럽 맨이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건 학생회비보다도 절차가, 자동 납부되는 학생회비보다도 절차가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아리 활동한 기간 중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활동 확인서 발급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노력이 드는 게 아니라 일반 집행부원이 그냥 시트에서 한 번 확인한 후 진행할 만큼 간단한 절차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지금 과징금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쭙았던 것이 학생회비를 안 낸 사람이 학생회장을 하고, 학생회장으로서 중운위에 와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전학대회에서 대의원으로서 발언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거를 의결권은 의결권대로 행사하고 투표도 하고, 학생회장으로서 임기도 수행하고 했을 때 나중에 사후적으로 활동 인증서에 기재 안 해주는 걸로 끝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일까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산학부에서 혹시 의견 줄 수 있을까요? 수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으로다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산학부분께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일단 발언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물론 단순히 활동 인정을 안 해주는 것보다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조금 더 이게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 강력한 수위의 조치인 만큼 절차가 조금 더 잘 잡힌 상태에서, 단순히 중운위 의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회비를 안 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하는 것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그 적법하고 합리적이지만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좋을지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예, 저는 계속 주장하는 바가 만약에 과징금을 하는 쪽으로 다른 중운위원분들도 다 동의를 하셔서 이것이 넘어간다면, 적어도 조금 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세칙 개정 정도가 뭔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다른 중운위원분들께서 과징금은 과하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으시다면, 저는 활동 인정을 하지 않는 정도로 그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이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권리나 일은 다 해놓고 그러니까 권한은 다 행사하고 나중에 기재 안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약한 수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만 저는 그러면 한 번 더 납부할 기회 주겠다라고 해서 추가 납부를 받고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 이중 혜택이라고 주장하신 의장님의 말씀에는 또 반대를 합니다. 저는 어쨌든 각 자치단체에서 내부 호선을 했든 선출,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했든 어쨌든 대표자고, 선출직이고,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약간의 선의를 베풀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추후에

적발될 경우 추가 납부 기회를 주고, 추가 납부를 할 시에는 납부 전 학기 시작부터 납부 전까지 그 사이 그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어떻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너무 멀리 본 걸 수도 있긴 한데요. 학생회비를 만약에 이번에 봄학기 때 안 내고 학생회 활동하다가 학생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납부 기회를 얻게 되면 당장에 봄학기 중에 이제 막 결과가 나오는 경품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고 당장에 KAMF에서도 봄학기 때 군대에 있거나 인턴십 등으로 학생회비를 미납하신 분들, 혹은 가을 학기 신입생의 경우에는 캠프 참가비를 납부하고 카이존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학생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여러 가지 소소한 혜택들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른 학우분들이 보시기에 학생회 했다고 조금 더 뭔가 어드벤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까봐 그게 좀 염려되어서 그거랑 별개로 처리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에 관해서 우리가 산하기구 차원에서 혹은 중운위 차원에서 그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 과징금이라는 과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장의 이 내용에서 이름만 학생회비 추가 납부로 바꾸고 그리고 추가 납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반영한 다 납부 후에 반영만 해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동아리 연합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게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활동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은 외부 회사에 취직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입시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때 자기소개서에다가 자기가 활동한 내용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이게 약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약간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그러면 여태까지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 틀인 것 같습니다.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미납자가 학생회 활동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걸 방임해선 안 된다까지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방임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었을 때 그냥 활동 미인정 활동 인증서 미발급이겠쥬, 그 해당 기간 동안에 활동 미인정, 혹은 학생회비 추가 납부, 혹은 과징금인데, 네, 수위는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절차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은 게, 세칙 개정 등에 좀 더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실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학생회비 미납자가 학생자치 활동을 하면서 권한이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미납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방임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럼 확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조치가 1번이 활동 인증서에 해당 기간 동안 발급(기재)하지 않는 것, 2번이 학생회비 추가납부 기회를 주는 것, 3번이... 추가납부를, 어떻게 보면 2번이 학생회비를 추가납부를 시키는 것이죠. 사실상. (2번이 학생회비 추가납부를) 시키는 것. 3번이 과징금인 거고. 이에 대한, 이걸 시행하는 절차로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는 적어도 세칙 개정 정도는 돼야 된다, 가 현재까지 공유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실까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수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정하고 간 다음에, 절차는 정리가 된 것 같으니 그 절차를 좀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소재공학과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 인증서 미기재는 그중 가장 약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활동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중운위 및 전학대회에서 한 발언과 의결을 회의록의 정정을 통해 무효화해버릴 수도 있고요. 미납 후

확인된 직책에서 즉시 파면시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1번 활동 미인정은 그냥 활동 인증서의 미기재입니다. 그리고 신소재과 학생회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1번과 2번 그 사이의 중간에 어딘가인 것 같습니다. 활동 인증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미인정, 이렇게 되면은 저희 회의록 다 정정해버리면 정족수 이슈도 있고,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공개해서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비슷한 판례가, 그렇게 하자가 있었을 때, 의결권자에게 뭔가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하자가 있었을 때, 의결 과정에서의 소집부터 결과까지의 그 절차가 하자가 없으면 소급해서 그거를 무효로 하지 않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상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신소재학과에서는 1번과 2번 사이 중간 정도의 수위 하나를 또 제안해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납부 확인된 직책에서 파면 정도로요? 해임 내지 선출직을 해임시키지 못하죠 저희가. 사퇴 사실 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러면 징계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선출직은 해임도 못 시키고요.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소재학생회장님?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잠시만요. 1번과 2번의 사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의장 한정현: 활동 미인정과 활동을 인정해주되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추가 납부건 과징금이건 그 종간의 조치로 생각했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저는 활동을 인정해주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추가 납부로 생각한 거고요.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세 가지 중에 저희가 정해서 그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다가 관련 사안을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징금을 안 냈을 때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추가로 정해야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과징금을 내면 인정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고, 과징금을 안 내면 그냥 인증을 안 하는, 활동 확인서에서 해당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하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거 반영하고 행정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안이 과연 그렇게 본인이 쇼핑하듯이 학생회비를 내고 활동 인정받고, 안 내고 활동 인정 안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1년 동안 동아리처럼 활동한 어디 단체 부원이면 또 몰라도 의결권을 행사하고, 안건을 내고, 수많은 학생회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는 단체장일 경우에, 이것이 본인이 쇼핑하듯이 이렇게 고르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재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동아리연합회 전체 동아리원 수보다 한참 적다고 생각합니다. 2천 명보다는 당연히 적을 거니깐요. 그래서 이것은, 엑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초반에 그것만 조금 해둔다면 그렇게 큰 노고가 드는 작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카메라에 단속이 되게 되면 두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을 했다고 치면 10만 원짜리 과태료를 내고 벌점을 하나도 받지 않거나, 제가 과태료 벌금을 거꾸로 말한 것인데, 10만 원을 내고 벌점을 안 받거나 벌점을 한 10점 받고 과태료를 9만 원 내거나 이런 조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만약 이것을 둘 중에 하나의 징계만 취해져도 괜찮다라는 것에 다들 동의를 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거기에는 활동 미인정도 추가 납부액 혹은 과징금에 준하는 그런 패널티로서 작용한다라는 기본적인 컨센션스가 있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활동 미인정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패널티인가에 대해서는 신소재공학과에서 이야기해준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두 가지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가투표를 받아서 정하고 그거의 내용대로 추진하는 걸로 안건을 마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가결하고 부대결의하건, 수정해서 의결하건, 부결시키고 코멘트로 달건, 이거는 형식의 문제고요. 방향성에 있어서 각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그전에 있었던 회의 출결 개선안도 그렇고 소관 소위원회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부로 회부했다가 심의도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제가 의견을 여쭙본 적도 있어요. 이거 이 소위원회로 회부해도 괜찮은가. 이제 보통은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소관 소위원회 정하는 게 참 어려운데 소관 소위원회를 정한다 치고 하급회의체로 회부한 다음에 거기서 그 안을 몇 개 좀 더 마련해 오라고 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소관 소위원회는 제가 위원장분들과 잘 말씀을 나눠서 제가 신경 써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여기 안건 심의 과정 중에서 오늘 회의에서 안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추진하기, 가투표로 안을 정해서 그대로 추진하기, 두 번째가 하급 회의체로 회부해가지고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오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 의견 주시면 맞춰서 반영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동아리연합회 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저는 가투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의견,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가투표 쪽으로 수렴하는

것 같아서 가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투표 문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으로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활동을 미인정하여 활동 인증서 상에서 활동 미기재. 2안은 의무적으로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및 이에 따른 활동 인정, 인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안과 좀 선을 맞추도록 할게요. 제3안은 과징금입니다. 원안 내용입니다. 제4안은 제1안과 제2안 중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 후 둘 중 하나로만 결정입니다. 제3안은 이런 거 없고요. 조금씩 자구가 바뀌었는데 최종으로... 여기서 가투표 문안에 관한 의견 있으실까요? 네, 총학생회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질문입니다. 3안에 대해서만 한번 확실히 안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과징금 원안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대신 학부 활동 인증서에는 게재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본회 자치 활동을 한 사람에게 그 기간에 대한 학생회비 2만200원을 과징금으로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대신에 해당 활동은 인정해주되 이것이 학생회비 납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총학생회장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의견 더 있으실까요?

네, 중운위원들 대상으로 현재 가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팀장님, 혹시 가능할까요? 구글 폼으로. 재무국장님께서 구글 폼에 저희 가투표 문안으로 1, 2, 3, 4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2호로 해 주시고요. 아니, 보고안건 제5호로 해 주시고요. 찬성, 반대, 기권이 있는 데다가 제1, 제2안, 제3안, 제4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명확하게 여쭙보고자 다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괜찮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좋습니다. 그럼 2안과 3안의 차이에 대해서 짚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0원을 납부하느냐, 맞다, 라는 내용이고 활동 인증서에 인정이 되느냐, 맞다, 란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학생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느냐에 대해서는 2안은 맞다고 3안은 아니다인데 그럼 마지막 조항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작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가장 직접적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에 학생회비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이벤트나 이런 상품에 당첨됐을 때 3안의 경우에는 학생회비를 그때 안 냈으니까 못 받는 거고요. 2안의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냈으니까 낸 이후에 만약에 저희가 지금 8월인데 8월 21일인데 8월 23일에 냈고 8월 25일에 당첨됐으면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에 KAMF는 봄학기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KAMF에서 카이존에는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가 입장할 수 있는데 그때도 봄 학기 때 학생회비 안 냈고 마지막에 추가 납부, 추가 납부로 냈지만 정확히 학생회비 납부자는 똑같이 취급돼서 카이존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가장 직접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좀 더 멀리 보서는 저희가 8회 납부자부터는 완납자 취급인데 그 이후로는 학사 학자금에서 공제도 자동으로 안 되고 환급하면 돌려드리고 그냥 납부하는 걸로 취급합니다. 그에 대해서 3안의 경우에는 낸 걸로 취급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남들보다 2만 200원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고요. 2안의 경우에는 낸 걸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2만 200원 8번만 내면은 완납자가 되는 겁니다. 짧게는 돈을 몇 번 내야 되는가 해서, 2안으로 가면 그냥 똑같이 8번, 3안으로 가면은 학생회비 안 내고 학생회 활동한 수만큼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히 사안을 파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설명 요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네. 준비는 됐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은 채팅창에 링크 공유해 주셔서 보고안건 제5호에 대한 가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 후에 전체 위원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보고안건 제5호에 가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시간 더 필요한 의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투표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이후로는 가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3명 참여하여 1안 0명, 2안 3명, 3안 5명, 4안 5명으로 3안과 4안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3안과 4안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하고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며 해당 가투표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구글 전자투표 링크에서 1안, 2안 제외하고요. 3안, 4안만 기재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 다시 또 투표 받겠습니다. 13명이라 3안, 4안 중에 고르게 한다면 동률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가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운위 위원들께서는 배부된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제2023-19회 중앙운영위원회 보고안건 제5호 가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안과 4안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3안은 과징금 원안이고요. 4안은 1안과 2안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이후로는 해당 가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새 재석 인원이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투표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15명 재석 중에 6명이 제3안으로, 9명이 제4안으로 가투표해 주셔서 가투표 결과에 따라 제1안, 활동을 미인정하여 활동 인증서 상에서 활동 미기재 또는 (제2안) 의무적으로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및 이에 따른 활동 인증 중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안건 제5호의 내용은 부결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견으로서 과징금 제도 대신에 활동을 미인정하여 활동 인증서 상에서 활동 미기재 또는 의무적으로 학생회비를 추가 납부하여 이에 따른 활동 인증하는 방안 중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로 해당 안건의 결과에다가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보고안건 제5호 본회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 보고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5호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더하여 회의록에다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린 제1안과 제2안 중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 후에 둘 중 하나로만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 남겨놓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사항 처리 후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안건 제5호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예시로서 누가 누구누구 장이 안 내고, 누구누구 장이 회비를 안 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고 말씀드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핀셋 수사하듯이 일일이 다 학생이 납부하도록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중에 본인 혹은 본인의 지인의 사례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서 상처받으셨거나 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다 받은 이후에 저희가 관련 국서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만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오늘 회의 결과에서 나온 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심의안건 제1호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1호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입니다. 저희 오늘 참관 단위에서 제가 한 30분 내외로 보고안건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시간이 지나서요, 참관 단위 퇴실하실 수 있도록 참관 단위 안건까지만 조속히 심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잠시 휴회(정회)를 하고 남은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시간 정도 지났는데 휴회(정회) 없이 마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를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심의결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입니다. 저희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상반기 예산으로 과방에 있는 소파를 세탁하는 예산을 15만원 책정해 두었는데 해당 소파를 휴게 공간 개선 프로젝트로 인해서 폐기하게 되어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예산 금액을 0원으로 바꾸는 추가 경정을, 추가 경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불임1을 통해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불임 2를 통해 추가경정을 반영한 전체 예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8월 18일자로 소관 소위원회 심의(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기층예산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에 검토 보고서

화면을 송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층예산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가능하실까요?

○기층예산소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발언이 조금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간략히 검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층예산소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기층예산소위원회 산업디자인학과 추가경정안
관련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안을
작성할 경우에 변화량만큼의 값이 기록되어야 하여
마이너스 15만 원을 기재해야 한다고 검토
보고드렸는데 다시 회의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원래대로 0원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검토 보고받은 대로 이 현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금액상에 문제가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1호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에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의장 한정현: 네, 심의안건 제1호에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는 예산을 초과
지출하는 것이 아닌 감액하는 추가경정이고 이는
회계감사 매뉴얼상의 50% 미만 지출에 따른 감점
사항을 막기 위함이므로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 제1호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총학생회장 강동재: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1호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제2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2호입니다.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의결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VOK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VOK 국장 김선호: 네, 안녕하세요. VOK 국장
김선호입니다. 예상치 못한 회계 분류 변경과 타 단체
지원 여부 변경으로 인하여 제36회
태울뮤직페스티벌의 인건비와 기타비의 지출 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50% 이하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 과목에 대해서 실질적인
집행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예산안의 변경을
가하고자 추가경정예산 심의 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붙임1과 붙임2에서 각각
추가경정예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99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정) 99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추경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검토 보고를 받지 못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직권상정했습니다. 기한 내에 검토
보고가 안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검토 기한을
연장하여 심의를 받았으나, 해당 안건이 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에 27일 날
종료되는 3분기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부득이 직권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이나
의견도 없으신가요?

별도의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2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의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네.

○의장 한정현: 네. 심의안건 제2호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추가경정이 아닌 감액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을 소환하거나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을, 학생회비 또는 그 밖의 재원의 지원을 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 제2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8. 심의안건 제3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3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정 사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 심의·의결된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에 관하여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재정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네,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입니다. 우선 사후승인 예산의 금액이 기 편성 예산에서 총지출의 0.29%로 심의·의결 가능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안이 심의·의결되기 전인 2023년 3월 1일 및 3월 3일에 웹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자동으로 정기 결제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침구류 세탁비로 ₩58,000을 지출하고, 병역지정업체 취업박람회 진행 과정에서 근로 학생 인건비로 ₩255,000을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지출 내역들을 사전에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붙임1을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사후승인 예산안을 붙임2를 통해 이를 반영한 전체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AWS(Amazon Web Services)와 G-suit(Google WorkSpace) 구독료의 경우에는 자동 결제로 전학대회 심의·의결 전에 자동 결제 사항에 대한 사후승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침구류 세탁비는 예산 과목이 복리후생비로 보았으나, 예산 과목 관련 조사를 해본 결과 수수료였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지출하지 않고 수수료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지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경정보다는 사후승인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서 사후승인으로 받고자 하였습니다. 병역지원업체 취업박람회 진행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개최에 임박하여 근로비를 요청하여서 상반기 때 반영하지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으로도 편성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스태프를 모아놓고 추경 받아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사후승인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절차일 것 같아서 사후승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네. 별도로 질문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3호의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3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사후승인 예산안의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후승인 예산안이기에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여 표결을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배부된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3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의원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이후로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현재 투표 결과 집계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의안건 제3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9. 심의안건 제4호 전산학부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4호 전산학부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 심의·의결된 예산에서 총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에 관하여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사후승인 예산의 금액이 기 편성 예산에서 총지출의 6.06%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하고요. 세미나실 대여 20만 원 그리고 숙소 예약비 중 본회계로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한 4만 원으로 총 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산학부 워크샵 사업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3월 11일, 12일 양일간 진행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심의 이전에 행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숙소 예약을 위해 해당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붙임1과 붙임2를 통해 각각 사후승인 예산안, 전체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로 세미나실 대여에 필요한 숙소 예약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내용 마찬가지로 10% 이내여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후승인 가능한 범위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층 예산소위원회 심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기층 예산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층예산소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기층

예산소위원장 박병찬입니다. 우선 전산학부가 해당된 안건인 만큼 저보다 다른 위원분들께서 검토에 참여를 열심히 해 주셨고요. 전산학부의 경우 특별한 수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경정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집과의 일부 의견의 조율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후에, 회의 이후에 발견된 양식상의 하자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제4호 전산학부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에 관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네,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4호 전산학부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에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4호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직접 투표를 받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배부된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 4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의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이후로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4호 재적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산학부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0. 심의안건 제5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5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 심의·의결된 예산에서 총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에 관하여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VOK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VOK 국장 김선호: 안녕하세요. VOK 국장
김선호입니다. 자치회계 수입 중에 태울뮤직페스티벌
참가비가 전학대회에서 심의의결된 규모보다 크게
수금되어서 행사의 품질을 높이다 보니 물품비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약 13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예산 과목의 지출이 당해 연도
예산의 150% 이상이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의
변경을 가하기 위해 예산 사후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붙임1과
붙임2에서 각각 사후승인 예산안과 전체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건도 앞선 안건과
마찬가지로 중앙회계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검토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직권 상정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5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후승인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 편성 예산 총지출의 10% 이내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후승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5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에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5호에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5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의원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투표 마치겠습니다. 제가 투표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한 명이 늘어가지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이후로는 투표에

참여가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5호 재적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VOK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제5호까지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안건 제출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신 VOK 국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남은 두 건의
안건은 잠시 한 10분 정도 휴회를 했다가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심의안건 제6호의 경우 안건지에 붙임
파일로 들어가 있는 41페이지와 42페이지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확인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동일한 것이 맞다면 휴회하기 전에
파일 공유만 해드리고 그리고 휴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동일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게 두
페이지인가요? 총?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두 페이지 맞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파일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의 없으시면 10분 동안
휴회하겠습니다. (정정)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성원
점검하겠습니다. 재석한 위원들께서는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들께서도
입력해 주셔야 본인이 대리직을 수행하는 위원회
출결이 인정되니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럼 이상으로 정회... 화학과
학생회장 대리까지 해서 정회 성원 점검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각 23시 24분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23시 34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정회 선언하겠습니다.

(23:24 정회)

(23:38 속회)

○의장 한정현: 말씀드린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속회 성원을 점검하겠습니다. 재석한 위원과 대리인께서는 줌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안건 제6호에 필요한 성명문 파일을 줌 채팅으로 공유 드렸으니 필요한 의원들께서는 다운 받아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송출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실에 위원이 한 분 계시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입퇴실 기록지에 체크하시고 수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속회 성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한 위원님께서는 줌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23시 37분에 속회 성원 점검 마치겠습니다. 서기께서는 간사께 성원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린 시간이 지났으므로 속회 성원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까지 하여 성원을 확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서기를 맡고 계신 재무국장께서는 간사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서진: 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 21명 중 재석 15명 참석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23시 38분 제2023-19회 중앙운영위원회를 속회하겠습니다.

11.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관한 결의안

○의장 한정현: 안건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6호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 활동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규정 먼저 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학생회칙 제61조

대외적 사항 첨부해 두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 활동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는 협의 활동 직후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본회 차원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사전에 대외적 협의 활동을 심의의결하여 결의안 이후 그 내용에 따라 성명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술연구회, 줄여서 NST 산하 출연연구기관 25곳에 내년도 주요 사업비 삭감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8월 9일자로 통보가 되었고요. 이에 따르면 24년도 주요 사업비는 약 9,000억 원으로 책정되어 기존 규모 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라고 함은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예산을 뜻하며, 출연연별로 20~30%의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23% 삭감안을 통보받았으며,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예산안은 각각 28% 삭감되었습니다. 이외에 대부분의 연구원도 20%대 삭감을 통보받았다고 하며,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경우에는 약 15%의 삭감안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도 약 10%대의 삭감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학부·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관하여 이공계 전반적인 차원의 연대 및 성명문 발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주관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해서 유관한 기관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나 서울권 대학, 혹은 서울권 대학의 이공계 단과대학, 그리고 과학기술한림원이나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과도 함께 연대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포함해서 10개 대학 및 대학원 총학생회 차원의

연대를 추진하는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한림원을 비롯해서 과총과 연총하고도 논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R&D 전면 삭감 정책에 관한 성명문은 줌 채팅으로 공유드린 PDF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화면으로도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관한 성명문이며,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와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R&D 예산 삭감 재고를 요청합니다. 정책 위반 및 예산 수립 시 과학자들에 대한 정부의 존중을 요청합니다. 이렇게까지 두 가지 골자로 성명을 내며, 이것이 비단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소통과 이공계를 업으로 삼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존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본회 차원의 의사로서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의견 없으실까요? 따로 저희가 대외적 사항이긴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표결로 정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대외적 사안을 심의할 때, 그래도 좀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가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있다면 훨씬 좋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과 근거(를 제시해 주시거나) 혹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단위에, 각 단위들 대학에 안내를 드려서 25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쳐서 연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5일까지 각 단위들로부터 서울권 대학들, 그리고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한림원과 과총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이를 함께 카이스트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주관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안까지 함께 공유드렸습니다. 네, 성명문도 읽어보셔야 되고 할 테니까요. 23시 44분에서 45분 다 되어가고 있는데 3분 동안 검토 및 질의응답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저는 본 안건이 본 연대가 연대 성명문 발표가 원안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연구자들을 일방적으로 과학계 카르텔로 규정하고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철이나 필요할 때만 과학자들을 찾고 과학자들 처우 개선하겠다, 예산 늘리겠다, 해놓고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뒤에서 예산 삭감하고 과학자들을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원처럼, 구성원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품이나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처럼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대폭 감축할 경우 과학자들도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 이공계에 대한 존중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통론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리학과에서도 동의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검토 시간도 지났고 전반적으로 동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심의안건 제6호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관한 결의안의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심의안건 제6호의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6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위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이후로는 투표에 참여가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6호 재석 15명 중 찬성

15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의안건 마치겠습니다.

**12. 논의안건 제1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

○의장 한정현: 논의안건입니다. 논의안건 제1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다른 내용에
 더하여 지난 회의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 이를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고 대표자 책임 고취안에 세부내용과
 출결기준을 검토 보고를 받은 후에 해당 내용을
 의결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관련 내용과 달라진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기구 회의
 출결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자 책임 고취안 및 대표자
 격려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되, 대표자
 책임 고취안은 세부내용 및 출결기준은 하급회의체에
 회부하여 검토 보고를 받고 중앙운영위원회에 8월
 정기회의에서 정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대표자 책임
 고취안을 추진함에 따라 상기 내용을 서면의결 하는
 것으로 논의했고요. 서면의결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회의체인 회칙개정소위원회로 회부하여 8월
 19일자로 심의(검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의(검토)
 보고를 받은 내용을 반영한 안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결은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를
 따르며 공고된 회의록상의 출결을 기준으로 하되,
 의결기구운영세칙 및 회의진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제4호에서
 인정하는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로서 출결공고를 해서 미제출자를 공고하는
 내용과 회의 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 그리고 사과문
 미제출이 분기를 넘어갈 경우에 회의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전학대회에 징계안을 제출하는 것 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회의 수당 관련 사안은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학대회의 의결 사항 내지는 회칙과 회칙 개정
 등으로 추진계획을 하급회의체에서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의결기구운영세칙 및 회의진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 지각·조퇴·결석에 따른 사과문
 게재의 근거를 규정하고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제4호에서 인정한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기구의 실질적인
 최상위 의결기구 회의로 인한 경우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례로 동아리연합회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학부·학과 학생회의 경우에는
 총회, 만약에 총회와 운영위원회 사이에 학과
 확대운영위원회 등이 존재한다거나 그런 의결기관이
 신설될 경우에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수당 지급의 근거를 세칙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몇 월, 한 달에 대한 회의 수당을
 매달 25일에 주는 것, 아니면 매달 10일에 주는 것,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세칙 개정을 추진해서 9월
 중에 시행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네, 동아리협회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사실 저번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분명히 자치기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여기서 더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장 한정현: 네, 이어서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신소재공학공학과 학생회장이며 회칙개정소위원회의

의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동아리연합회장께서 채팅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치기구 내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그리고 그 회의 일정을 변경할 수 없을 때, 왜냐하면 회의 참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회의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도 회의 일자를 정했는데, 그게 전체 전학대회 또는 중운위와 겹쳐서, 이렇게 내 자치기구 회의도 못 바꾼다, 그런데 내가 출결 못했다고 이제 사과문 쓰는 건 과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이제 적극 반영하여 회의와 겹칠 경우에는 사과문을,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고 출결로 인정해 준다고 그것을 이제 아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규모 회의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이 나 어느 날 중운위 가기 싫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운영위원회 했다고 거짓말 치고 그냥 뭐 면제받아야지 이럴 수 있으니까 최하위 회의체의 경우에는 이제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의체, 실질적 최상위 또는 중간 단계가 있다면 총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총회는 잘 안 열리니까요. 총회 이 이하에 이제 실질적 최상위 의결기구 있다면 그 기구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표결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연합회장님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이에 더해서 세칙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유로 작용하지 않았던 자치기구의 실질적인 최상위 의결기구 회의도 사유로 반영되어서, 이로 인한 결석이, 사유서를 내면 결석이 아닌, 결석으로 인해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회의수당도 나오는 거고요. 네, 전산학부에서 먼저 손 드신 걸로는 제가 봤는데 맞으시면 전산학부 발언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산학과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과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할 경우 조금 전에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님께서 한 명이 진행하는 운영위원회는 다소 이것은 악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학과도 비슷하겠습니까만 집행부 전체가 참여하는, 전산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인데, 30명이 참여하는 집행부 회의를 진행하는 학생회장은 그러면 사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일까요, 아니면 집행부의 회의는 의결 기구가 아니므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일까요 를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의장 한정현: 일단은 내용이 많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산학과 학생회장 박병찬: 아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창섭: 네,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에 집행부 회의 같은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의도했고요. 다만 이게 현재 근거 규정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회의에다가도 이제 의결기구로서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방식으로 회칙 개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자치 규칙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임시로라도 총회가 열리지 않고 집행부를... (정정) 전산학부 내부에서 총회는 일단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열리지 않고, 실제로 열리는 회의 중에 가장 큰 것이 집행부 회의였다 라는 것을 임시로라도 좀, 그 회칙 개정 전까지 임시로라도 좀... 이렇게 어떤 절차를 통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인정을 받아서 저는 회의 출결이, 그러니까 전산학부 학생회장이 중운위나 전학대회 때문에, 집행부 회의가 30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회의죠, 그래서 집행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한정현: 회칙개정소위원회에서 답변을 준 취지는, 의결기구 같은 경우에는 소집 공고도 해야 되고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하나, 집행부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소집하고, 정족수도 없고, 장이 임의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기준이 마련되어서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취지가 이것을 반영하고자 녹여내고자 하였다, 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세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용인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가 뭐 무슨 회의고, 어디까지가 뭐 공식 해고를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토매틱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산학부에서 이어서 더 질문해 주실까요 그럼?

○전산학과 학생회장 박병찬: 그렇다면 지금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전산학부가 집행부 회의를 명분으로 사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부 회의가 운영위원회보다 상위 기구라는 다소 우리 학교 회칙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회칙 개정을 하거나 운영위원회 의결 정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구조로의 회칙 개정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집행부 회의가 회칙상 집행부의 항목의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시간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공식 회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 여쭙습니다.

○의장 한정현: 우선해서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창섭: 네,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창섭입니다. 일단 저도 지금 충분한 회칙 구조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서 제가 올바르게 답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동아리연합회 같은 경우에 확대운영위원회라는 회의가 있고 그것이 동아리연합회 내부에서 이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 그 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사이에

확대운영위원회라는 회의가 있는데, 확대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위원회의 정족수 멤버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일부 동아리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차용을 해본다면, 만약에 집행부 회의를 회칙 포함하고자 할 때, 운영위원회 멤버들이 이제 전부 참여하고, 거기에 추가로 비선출직이지만 어쨌든 회장의 공개 모집을 통해 모여졌고 그다음에 회칙상의 규정을 두고 있는 집행부원들, 집행부원에 대한 규정이 그 회칙에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칙에 합법적으로 다 기재되어 있는 이러이러한 멤버들이 모이는 회의이고, 어떤 정족수가 있고, 소집요건이 있고, 의사,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하면, 이게... 이게 그런 아주 기형적인 구조,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주 기형적인 구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어쨌든 집행부 회의의 집행부원들은 선출직은 아니다, 라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선출직인, 선출직들이 모두 참석하고, 거기에 이제 더하기 다른 멤버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또 아예 못할 것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의장 한정현: 네, 지금 내용들이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창섭: 네, 이제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재, 이제 현행 집행부 회의는 정족수가 없고, 그다음에 의장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그래서 중앙운영위원회 회장이 나가야 돼서 집행부 회의를 아예 못 하고, 이런 것까지는 또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현행 체계대로라면 잘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의장 한정현: 예, 그 회칙 개정 쪽으로 자꾸 이야기가 빠져서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건 회칙 개정을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의결기구 정족수가 있고 출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없거나, 아니면 과대표가 한 명이라도

없거나, 그다음에 대의원이 한 명이라도 없거나 하는 것이 크리티컬하지만 집행부에는 회장, 부회장 혹은 부장이 중운위랑 매주 겹치는 거 아닌 이상, 한 명이 청가해서 가거나 아니면 회장이 중운위 참석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모두 회의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또 그러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기구 간은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럼 집행부 회의가 실질적으로 의결기구회의, 의결기구 확대운영위원회급으로 그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게 항상 필요하다, 이게 의결기관 정도의 그런 당위성과 소집 공고부터 절차까지의 그런 정교함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회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회칙개정소위원회의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이 회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빠져가면서까지 또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그 당위성이 의결기구, 그리고 의결기구 중에서도 그 기관의 실질적인 최상위 의결기구 정도는 되어야 인정이 되는 수준이다, 라는 것이 회칙개정소위원회에서 올려준 추가 안들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전산학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까요? 추가 질의 있으시면 발언권 더 드리겠습니다.

○전산학과 학생회장 박병찬: 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이해했고요. 집행부 회의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서 회칙에 그런 것이 반영된 수준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음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치기구가 진행하는 일이 비단 의결기구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어제도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만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학과 인원에 상당수가 참여하는 중요한 사업이, 연초에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임시 중운위 등으로 회의가 잡혀서 이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때, 해당 기구장은 사과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이게 우리가 이전까지는 출석을 한두 번

정도 안 해도 AB 체계로 인해서 약간의 완충 작용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사과문을 쓰는 건 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과문에 대해서 개개인이 생각하는 경중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이걸 분명히 잘못이 있는 사람이 써야 하는 일인데 그러면 워크샵을 연초에 그날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써야 하는 것인지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 설정이 힘들니까 그냥 사과문 쓰세요, 의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우선은 기준 설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올린 거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회칙개정소위원회에서 먼저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면 제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창섭: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번 더 동아리연합회 사례를 가져오자면 동아리연합회에서도 만약에 어떤 동아리에 연중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가 전동대회와 겹쳤다, 그러면 이제 그 동아리에는 출석을 인정해 줍니다. 의장이, 동아리연합회장이 인정을 해주는데,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현재 우리 지금 중운위와 전학대회의 출결도 똑같이 적용을 하기에는 그러면 무엇이, 이 행사가 진짜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가 맞느냐를 누군가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언제 예약됐는지, 이 행사가 언제 잡혔는지, 그다음에 학과 대다수가 참여한다 그래도 그럼 한 명이라도 참가가 진짜 안 되는지 등등등 너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이걸 회칙에 명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회칙에 명시를 할 수 있는데, 누군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운위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운위 안건으로 올려서 이의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회칙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오토크하게 결정되는 것만을 기재하기 위해서 행사의 경우는 좀 제외를 했고요. 만약에 행사 같은 걸로도 인정을

받으려면 이의 신청을 해서 중운위에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명문화해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하도 중요한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빠져도 ok 해주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출석 면제권? 토큰? 라이프라고 하죠, 라이프. 수업에서 라이프 주듯이 한 번 정도는 뭐 라이프를 주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면 그런 식으로 의결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아 네, 그 라이프인가요? 출결 라이프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급회의체에서 검토할 때 나오지 않았던 의견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방법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연중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동아리연합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연중 중요한 행사라고 하면 그게 한 달에 한 번 있지 않을 테니까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라이프를 줘서 그거에 대한 이것이 진짜 우리 학과의, 우리 학생회의 중요한 행사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라이프를 쓸지 말지를.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그것이 오토매틱하게 작용하는 면이나 아니면 학과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는 면이나 있어서는 조금 반영하는 방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전산학부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그러면?

○전산학과 학생회장 박병찬: 아니요 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 동아리연합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애초에 이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굵어 부스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왜 올렸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의장 한정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면 될까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그 일단은 제18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ABCI 제도를 고치는 것도 부결된 만큼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원래 현행제도...

○의장 한정현: 한 가지 정정 드리면 ABCI 제도가 부결된 것은 본 안건과는 다른 이유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일 이내에 공고되는 회의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그래서 애초에 이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그냥 차라리 나왔을 텐데, 이런 안건이 왜 올라왔는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17차 중앙운영위원회 때 의결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이거를 의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자 책임 고취안과 대표자 변경안이 추진되는 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왜 자꾸 확정되었다고 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걸.

○의장 한정현: 네, 답변 드리면 될까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네.

○의장 한정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우선은 제가 지난 격려금 폐지 논의안과 함께 회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던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명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한 내용물을 가져와서 제가 올린 것이고요. 경위를 말씀해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 기구 출석률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서입니다. 물론 현재 보신, 빨간색이 결석이고 노란색이 조퇴 또는 지각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출석률이 좋은 거나 나쁜 것에 대해서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0%만 출석해도 출석률이 높은 거다, 라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개인의 가치 판단이지만 내가 의장으로서 봤을 때, 현재 출석 상황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 안건을 제출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 대로라고 하면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바꾸려고 했던 이유는 기존 제도대로 했을 때 마치 쇼핑하듯이 회의를 빠지고 페널티를 받지 않는 면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학과가, 우리 학생회가 받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회의를 결석하는 상황들을 지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책임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사람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여 제도를 고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의결 같은 경우에 이어서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논의안건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 안건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실까요, 아니 반대나 의견 있으실까요, 를 계속 여쭙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회의에 아마 기계의 이슈로 참여의 조금 어려움을 겪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스트리밍이나 오늘 공고된 속기록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안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정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봤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안건지 확인해 보시면, 회의록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운영을 하고자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체에서 정해지고, 결과도 공고 드렸고, 그리고 회의록도 서명 다 받아서 공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할 수 없고요. 그에 따라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이 세부기준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자 책임 고취안의 세부내용 및 출결기준은 하급회의체에 회부하여 검토 보고를 받고 중앙운영위원회 8월 정기회의에서 정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대표자 책임 고취안의 세부내용 및 출결기준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및 출결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그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들, 좀 바뀐 내용들은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동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그럼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왜 출석 안 했는지 정도를 여쭙보고, 그... 그것에 대해서 약간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과문이 그냥 간단한 사안도 아니고 전학대회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해버리려고 하면 안 되죠.

○의장 한정현: 네, 우선 전학대회 징계를, 전학대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님을 지난 회의 때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오윤석 위원님께서 왜 회의에 결석하셨나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저는 운영위원회 때문에 결석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의장 한정현: 그러면 결석한 모든 회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때문에 결석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집행부 회의랑 겹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같은 이유에서라면 다른 위원분들도 똑같이 본인이 속해 있는 회의가 있을 거고, 본인이 속해 있는 학생회 집행부 회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해 가면서 참가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정 자치기구의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의결기구가 많다고 해서 그 자치기구만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출결에 관한 결석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결석했다 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에 더해서 다른 방향에서 출결 개선 논의안도 본 안건과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우선 저는 집행부 회의와 관련해서 거듭 질문 드렸던 이유는 전학대회와 집행부 회의가 겹쳐서, 임시 전학대회와 집행부 회의가 겹쳐서,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곤란한 상황을 벌써 지난학기에 두 차례나 겪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학과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운위가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려서 물론 일정 조율이 용이해지긴 하였지만 연초에 잡았던 일정과 겹칠 수 있는, 충분히 겹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언급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 앞서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과 별로 중요한 일정을 다 인정해줄 수 없다면 적어도 한 학기에 한번정도 사유를 면제하는 토크 같은 것을 부여해서 그 사람이 그걸 어떤 학생회 사업과 겹칠 때 쓰던 그 사람의 가치 판단에 맡기고, 그러면 사과문 쓰는 것을 막으면서 합리적으로 자치기구의 개별사업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회칙 개회 소위원회에서 어렵다고 말씀해주신 내용은 학과 사업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본인조차도 해야 되고, 중운위에서도 해야 되고, 의장이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개인이, 혹은 학과 학생회장이 대표로 판단을 한다면 중운위가 존중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사유를 묻지 않고 학기당 한번 유예를 해주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새내기학생회에서는 라이프를 부여한 체제로 갈 경우에 각 학기당 라이프 개수를 몇개로 제한될 것인지 대한 논의를 함께하면 좋을 듯하다고 생각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논의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자면요, 전산학부에서는 몇 개 정도가 적당한지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새내기학생회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저는 한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그 정도로

중운위까지 못 가면서 진행하는 정도의, 학생회장 또는 대리인을 구하기 힘들 정도의 사업은 하나 이상, 하나보다 많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한 개를 제안 드렸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그것을 예를 들어 중운위 대신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데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무조건 개인의 가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유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네, 맞습니다.

○의장 한정현: 하다못해 집행부 내의 TF회의라고 뭔가 오피셜하게 어디서 뭔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정을 조율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가능한 경우가 분명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구체해주는 정책은 충분히 고려해줄만 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전산학부에 대해서는 학기 당 한 개의 라이프를 제안해 주셨고요. 새내기학생회에서는 몇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네,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입니다. 혹시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제안해주신 학기 당의 기준은 봄 학기와 여름학기를 개별적인 학기로 보고 얘기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느낌으로 반기당 하나를 의미하시는 거라면 저는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각각 개별적인 학기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타과 학과 학생회에서는 봄학과와 가을 학기에 주되게 학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시기에 해당 회의로 인해서 중앙위원회 그리고 전학대회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희 새내기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학과와 겨울학과에는 각각 봄학과와 가을학과에 새로운 들어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새내기새로배움터 행사 기획으로 가끔 있는 이러한 주된 회의에,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일정이 겹쳐서 조금 곤란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당장 본 회의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새내기새로배움터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굉장히 리허설 및 기타 준비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일정이 겹치기에 있어서 조금 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분기당 보다는 여름학기과 겨울학기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기구가 존재함에 따라서, 각 학기별로 라이프를 하나씩 주시는 것이 어떠한지 이에 대해 제안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각 학기, 소위 말하는 저희 학생회칙에 있는 제166조 사항에 있는 분기조, 분기별로 하나씩을 제안해 주셨는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듣고 고민해본 사안이, 하반기로 통칭하면 임기가 중간에 교체가 되는데, 대부분 학과 학생회에서. 그럴 경우에 선임이 11월달에 라이프를 써버리면 1월 2월달에 쓸 라이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각 학과에 달력 사업에도 맞고 또 실제 임기 교체 등을 고려한 충분한 틀러런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 연합회는 계속 발언권 요청하시는 걸까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관련 논의, 전산학부에서 말씀해주신 라이프 관련 논의는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동아리연합회에 이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첫째로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한테도 적용되는 것들이고, 저는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면 안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걸 얘기해야 한다고 저번에도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얘기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줄 아십쇼.

○의장 한정현: 네, 마지막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그런 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칙 개정할 때는 중운위에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칙 개정을 추진하게...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이걸 여기서, 중운위 차원의 동의를 있어서 세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중운위에서 지난번에 감사시행세칙을 발의하고 의결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전학대회로의 안건 상정 등은 필요에 따라서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의장으로서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내기학생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아님 손을 아직 안 내리신 걸까요?

네, 따로 말씀 없으셔서 신소재공학과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신소재 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우선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든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대전제 하나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당연히 이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아실 건데, 그래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 중이라 한 번만 더 환기시키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학생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학생사회 전체에 회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 자치기구마다의 회의가 있을 것이고 동아리끼리의 회의도 있을 것이고 동아리 내부의 회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동아리 연합회 회의도 있고 하여튼 회의가 엄청나게 많은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중앙운영위원회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1년에 20, 한 22번가량 개최가 되어서 각 한 번 개최될 때마다, 지금 3시간 반 짜인데요. 이게 피로도가 높아서 하기 싫어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저도 기록되는 공개 석상에서 하기 그렇지만, 저도 당연히 중앙운영위원회 오기 싫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될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모두 선출직들인데 저희를 선출하신 학생들이 나 대신 네가 중앙운영위원회 가고 전학대회 가라, 하고 선출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많이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긴 한데요. 저도 사람으로서, 인간적 본성으로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임기 동안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후배들이 대표자를 할 때에도 그것이 계속 이행되고 잘, 학생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논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표현을 안 하시더라도 해당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도 받고 그걸 반영해서 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나 의견 더 있으신 위원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내기학생회에는 지금 손 드신 걸까요? 아직도 안 내려가고 있는데... 네, 따로 말씀 없으실 때까지는 일단은 제외하고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손 든 순서대로 전산학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저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앙위가 우리 학생사회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회의이고 다른 학과와 학과 학생회장들과 모두 시간 내서 참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회의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자치기구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뽑아준 것은 다른 학과 학생들도 아니고 저희 기구 소속의 학우들인데, 그 학우들이 생각했을 때 해당 자치기구의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제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언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감되는 것이 많을

것이고 저를 뽑아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보답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위 만큼이나 개별 자치기구에 중요한 사업 그리고 중요한 의결기구 일정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당 안건에 잘 조율되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대리까지 발언을 듣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대리 윤대환: 아까 논의를 하다가 그 토큰 관련되어서 오남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하자면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문을 조금 게재를 함으로써 약간 이렇게 사용하는 한 번의 기회가 조금 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라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공개적으로 출결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방법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다른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지 아닐지는 약간의 걱정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청가 사유는, 청가는 아무거나 사유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되고 휴가도 되고 다 괜찮은데 토큰에 대해서는 결국에 유예해주는 것이니까 좀 더 오피셜하게 이 사유를 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주셨고 그럼 그 내용도 반영해서, 그러면... 네, 그 내용도 반영해서 사유를 그러면은 학과 행사 아니면 학내 공식 일정에 국한하지 말고 사유와 관련된 토큰을 쓸 수 있는, 쓰기 위한 뭔가를 제출하도록 하되, 그것을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 스스로 그냥 자정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전산학부에서 의견 주신 내용이 토큰을 쓰더라도 개인의 여행, 친구들과의 만남이 되면 안되니까 조치가 필요하다, 제안이 필요하다 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친구와 만남인지 아니면 타 학과 학생회장과의 교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토크에 대한 사용처를 아무튼 메일이라도 보내야 될 테니까 거기에다가 명시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대리 윤대한: 좋은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대리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이디어 제안해주신 전산학부에서도 동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논의안건 제1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회의 출결기준에 대해서, 라이프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분기당 1회 라이프를 제공하고 라이프의 사용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안건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의나 반대 의견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별도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논의안건 제1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의 결과를 원안의 내용대로, 의결기구운영세칙의 개선안을 추진하되, 출결기준에 관하여서는 분기당 1회 라이프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사용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안건 마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한정현: 의사진행 발언 허용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네, 안건에는, 안건을 이대로 마치는 것에는 동의를 하되 다만 아까 동아리연합회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듯이 이게 전학대회 대의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연서를 모아오시면, 전학대회에서 세칙 개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세칙 개정을 중운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학대회에서 하는 것도 한번, 다른 지금 의원 개개인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연서를 써 오시면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 주의 한 번 환기시켜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 관행상도 그렇고요, 저희 회의에 관한 의결기구운영세칙상에도 그렇고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건 상정을 연서를 받아서 요청했을 때, 전학대회에 상정해달라는 말씀이지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회칙 규정상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학대회로의 안건을 상정하는 안을 연서 등으로 받아오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관련된 회칙에 규정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성원을 점검하겠습니다. 재석하신 중앙운영위원 및 그 대리인께서는 줌 채팅창으로 재석이라고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줌 채팅창에 입력한 것으로 폐회성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시 38분까지 받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폐회 성원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각 24시 38분 제2023-19회 중앙운영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 긴 시간 논의에 참여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한 이 회의의 결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논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위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신 내용들 앞으로 더 잘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4:38 폐회)

결 과

● 주요내용

- 보고안건
 -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제4호)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설치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제5호) 본회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 보고
 - 부결함.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견으로서 활동을 미인정하여 활동인증서 등에서 활동을 미기재하도록 조치하거나 의무적으로 학생회비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활동을 인정하는 방안 중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기로 논의함.
- 심의안건
 - (제1호)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2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3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4호) 전산학부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5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6호)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결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논의안건
 - (제1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
 - 원안의 내용대로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안을 추진하되, 회의 출결기준에 관하여 분기당 1회 대표자 책임 고취안에 따른 사과문 게재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하 "라이프"라 한다)를 추가하기로 논의함. 다만, 학과 행사 참석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프 사용 사유는 공개하기로 논의함.

● 표결결과

안건	재석	찬성	반대	기권	결과	비고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4호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채용설명회·상담회 추진단 설치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5호 본회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 보고	-	-	-	-	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1호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2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3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13	13	0	0	원안 가결	
심의안건 제4호 전산학부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13	13	0	0	원안 가결	
심의안건 제5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14	14	0	0	원안 가결	
심의안건 제6호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관한 결의안	15	15	0	0	원안 가결	

【표결사항】

○ 심의안건 제3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3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3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심의안건 제4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3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3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심의안건 제5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4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4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심의안건 제6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5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5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한 정 현	<u>J. H. Han</u>
위 원	윤 서 진	<u>윤서진</u>
위 원	오 윤 석	<u>오윤석</u>